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에…”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190배 급증
보증사고도 잇따라… 총 4세대·9억원 대위 변제

제주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주 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 반환보증) 발급 실적은 570세대·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내 전세반환보증 발급 실적은 2015년 3세대·5억원, 2016년 7세대·13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 42세대·77억원, 2018년 110세대·19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던

서 발급 실적이 지난해에는 467세대·665억원, 올해 570세대·89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전세반환보증 발급 실적은 14만3415세대·29조4827억원으로, 지난해 기록 14만6095가구·30조644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보증사고 4건, 사고 금액 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보증사고 2건, 사고 금액 5억원 등이다. 이로 인해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2세대 4억원,

올해는 2세대 5억원 등이다.

전국적으로 보증사고는 지난해 3422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대위변제 금액도 지난해 2836억원에서 올해 3680억원으로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증사고,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 임대 등록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은 내년 8월 18일 이후 적용된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송재호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건의는 했지만 약속 받은 적 없어”

선거법위반 혐의 두번째 공판
검찰 “요청에 성사된 것처럼 사실 관계 왜곡한 것” 반박

‘문재인 대통령 4·3 약속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선거구)이 법정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자신에게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송 의원은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0 법정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오일장 발언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절 문 대통령에게 두 차례 4·3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통치 행위상 이런 제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과 대통령 공약 관리 차원에서 (추념식 참석과 법 개정)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해 4·3추념식 개최와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념식 때 대통령이 참석해, (송 의원 입장에서) 자신의 노력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오일장 약속 발언은) 이같은 자신의 노력

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데, 검찰은 (약속이란) 단어 선택 하나를 가지고 무리하게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방송토론회 때 상대 후보 측이 오일장 발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 재직을 위해 대학교 교수 일을 휴직하는 등 ‘봉사’했다는 의미에서 무보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이 피고인 개인 요청에 성사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인데 송 의원 측이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토론회 때 상대방 후보 측이 보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송 의원이 먼저 무보수 발언을 3차례나 했으며 즉흥적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올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 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 의원은 이를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 3일 3차 공판을 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안전한 수능시험 위해” 도-교육청 비상근무 돌입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비상연락망 구축, 부서별 협업 등을 시행하는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도교육청에 먼저 신고하며, 교육청은 신고 사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관할 보건소는 확진자 및 격리자 분류 등 관련 절차에 따른 방역관리를 실시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능 응시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자차이동 또는 119구급차 지원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는데, 현재 제주에서는 확진 수험생은 없고, 1명의 자가 격리자가 서귀포시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예정이다.

수시 1차 발표가 있는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육지부 방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다.

수능 응시일 이후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21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제주 제95지구 제8시험장인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이상기기자

폭행·폭언에 멍드는 119구급대원

제주 최근 5년간 31건 발생
대부분 주취자… “처벌 미미”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1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올해 11월까지 6건, 지난해 8건, 2018년 9건, 2017년 2건, 2016년 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은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의 근무복·헬멧 등에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인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 발생 시 자동 경고·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외부 현장에서도 갑작스럽게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구급차 38대 중 자동 경고·신고 장치는 구급차 8대, 음압구급차 4대 등 12대(31.57%)에 설치돼 있다. 또 ‘웨어러블 캠’ 총 95대를 보유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발생하면 119상황실, 경찰 등에 자동

신고가 이뤄지는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만 예방이 아닌 전파가 목적”이라며 “올해 11월 중 발생한 폭행 사례는 구급차 내부에 경찰이 동승했음에도 일어난 사례”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폭행·상해 혐의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양형기준 등 처벌 수위가 높지만,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 119구급대원은 “물리적인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며 “구급대원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서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받아

제주에서 처음으로 ‘학교 밖’ 학력인정 사례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 1명에 대해 중학교 학력인정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학생은 중학교 학업중단자로,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학습자로 참여했다. 이후 학력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

력인정평가(6차)에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학교 밖 학습경험,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경험으로 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부의 시범사업이다.

현재 총 4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학습지원 시범사업으로 학력을 인정 받은 학생은 40여명에 불과하다.

송은범기자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한 수제두부

순수한 두부

전래 제주 손맛 그대로

수제두부전문점

BAKERY CAFE

메이커리 카페

용담동 310-11번지,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는 반세기 동안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콩을 삶으며 두부 그 이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의 꿈, '순수한 두부'를 펼칩니다.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해 매일 신선한 두부를 만들고, 그 순수한 두부로 둬비식빵에서 보말 순두부까지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뭘 먹지?'하는 고민은 '순수한 두부'에게 맡겨주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건강한 한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세기, 이자리에서, '순수한 두부'가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건강한 한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맹점 모집

본사 및 가맹점의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의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여 초보자 창업이 가능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서문로 37-11(용담일동)
T. 064) 747-1361